

산림을 통한 탄소중립으로 기업의 사회적 가치 높인다

- 산림청, '2024년 그린 이에스지(ESG) 밋업데이' 개최

산림청(청장 임상섭)과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최무열)은 서울가든호텔에서 산림에 기반한 기업의 환경·사회·투명경영(ESG) 실천을 활성화하기 위한 '2024년 그린이에스지(ESG) 밋업데이'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국내기업의 환경·사회공헌·투명경영(ESG) 업무 담당자 약 100여 명이 참석해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 실천을 위한 산림의 효용성과 국내 산림탄소시장의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탄소시장 전문가, 유엔사막화방지협약사무국 전문관 등이 발표자로 참여해 △국내 탄소시장 현황 및 산림탄소제도 현황 △국제기구의 환경·사회공헌·투명경영(ESG) 연계 활동 및 사례 등 산림분야의 민관협력 방향성을 설명하고 국내기업들의 자발적 탄소중립 활성화를 위한 토론을 진행했다.

산림청은 이날 행사로 발생한 탄소발자국을 상쇄하기 위해 산림을 통한 탄소흡수량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탄소감축인증센터'에서 전환해 활용하는 탄소중립 실천사례를 선보이며 산림을 통한 탄소거래 활성화에 기업들의 참여와 협조를 요청했다.

이미라 산림청 차장은 “산림은 기업의 지속가능성, 탄소중립, 환경·사회공헌 같은 과제에 활용 가치가 높은 자원이며, 산림청은 그 역할을 함께하는 파트너”라며, “산림 분야에 기업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담당 부서	산림산업정책국 산림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관호 (042-481-4130)
		담당자	서기관	이상협 (042-481-4037)